



402 - 그룹

마바백 아셀



□ 다눈이 마을은 모든 것에 눈이 달렸어요.

□ 지붕에는 왕눈이, 나무에는 줄무늬 눈이,  
화장실에는 감은 눈이, 달에는 반달눈이... 언제나  
모든 걸 보고 있으니 모르는 것이 없었지요.



- "우리처럼 마을에 관심을 갖는 게 세상에 있을까?"
- "어머! 재는 만날 공부도 안 하고 밥투정만 하더라."
- "맞아. 어제는 옷도 이상하게 입고 돌아다니더라고."



- "재는 인사성도 없어. 얘! 인사를 잘 해야지!"
- "저기에 먼지가 많은데 어디를 청소하는 건지, 쫘쫘."
- 사람들은 눈들의 지나친 관심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. 혼날 때도 많았지요.



- "도저히 이 동네에서는 살 수 없어.
- 숨이 킁킁 막히는 것 같아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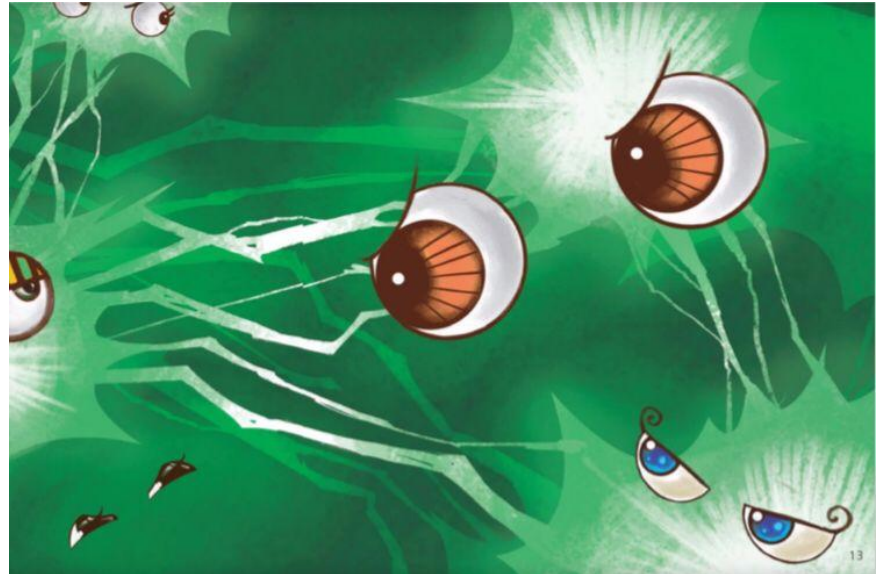
- 다눈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어요. 거리는 조용했어요.
- 다만 눈들의 불만 섞인 말들만 오고 갔어요.





- "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아들을 지켜줬는데 다 떠나버렸다는 거지?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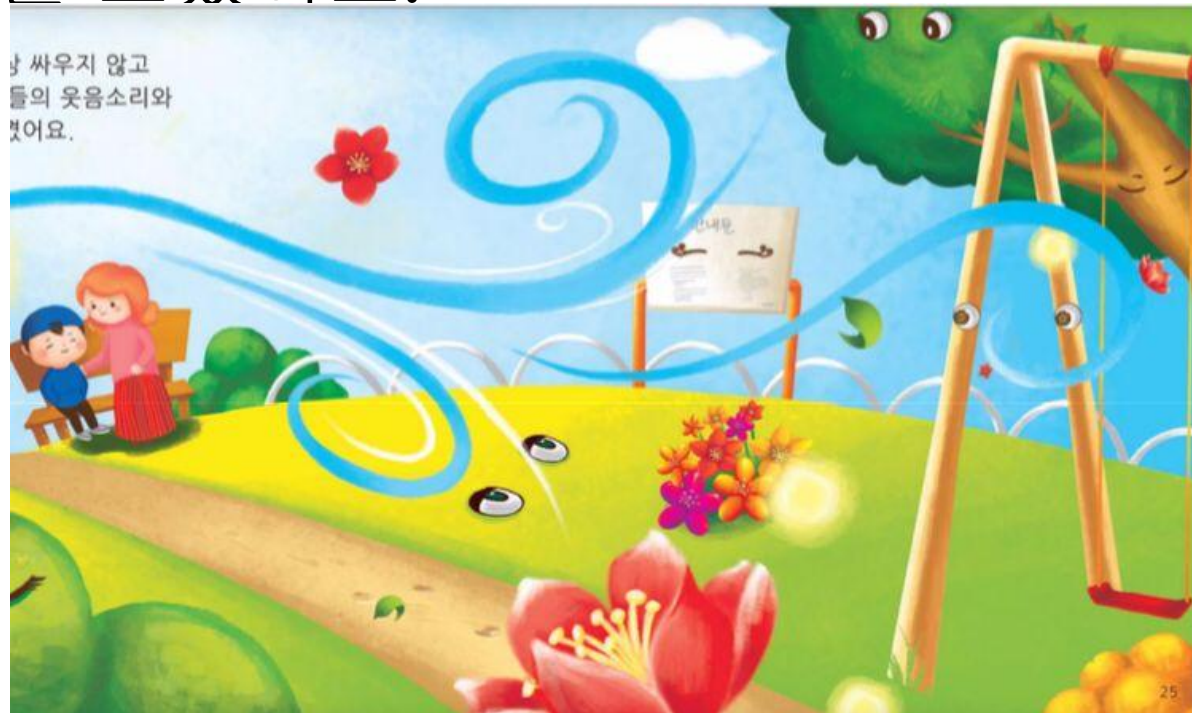
- 눈들의 꼬리가 올라가면서 모두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. 그러다 보니 눈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.
- "너 정말 못생겼다."
- "뭐라고? 네 눈은 정말 마귀 할머니 같다고!"



- "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구나."
- 바람은 왕눈이의 눈을 어루만져 주었어요."
- "너는 누구니?"
- "나는 바람이야."
- "아무도 없으니 심심하지? 내가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새들을 날려볼까?"
- 바람은 나무를 흔들었어요. 그리고 나무의 예쁜 꽃잎도 떨어뜨려 주었어요.
- "정말 아름다워."
- 외로워 눈물을 흘리는 반달눈에게 다가가 후 - 바람을 불어 눈물을 말려주고 흠이 들어간 눈에게는 후- 불어 흠을 털어주었어요.
- "정말 편안한 느낌이야."



- 바람은 꽃가루를 날려 예쁜 꽃들을 피어나게 하고 먼지를 쓸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.
- - 아름다워진 마을 소식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시 찾아왔어요. 다 눈이들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듯한 바람을 느꼈어요.





# 질문이-답이다

- 사람들은 왜 마을을 떠났을까?
- 누가 도시를 먼지와 쓰레기로 청소 했습니까?
- 그리고 그는 왜 그것을 청소 했습니까?

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!

